



공동체 소식



연중 제5주일

하느님, 고통을 겪는 모든 이를 사랑으로 성자의 파스카 신비에 결합시키시니, 저희가 시련을 겪으며 깨끗하고 굳건해져,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구원의 희망으로 형제들과 함께 고통의 신비에 참여하게 하소서.



- 2월 기도지향
- 박재천 알베르토 / 박계숙 헬레나 가정
 - 현교정 돈보스코 / 조경애 요안나프란치스카 가정

- 사순시기 운동
- 마니또 뽑기(사순1,2주일)
 - 구역미사 및 판공성사
 - 사순특강
 - 신심서적 '차쿠의 아침' 읽고 감상문 쓰기

- 재의 수요일 전례
- 일시 : 2/18(수) 오후 8시
 - 내용 : 십자가의 길, 미사 중 재의 예식
 - ☞ 이날은 단식과 금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 맨하턴 공동체 미사식
- 일시 : 2/14(토) 오전 11시
 - 장소 : 성 토마스모어 성당

- 설 합동 위령미사
- 일시 : 2월 15일(일) 11시 중심미사
 -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세상을 떠난 부모, 형제, 친척, 은인의 영혼을 기억하며 합동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지향은 미리 전례부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미사 후, 어린이 세배와 율놀이도 마련됩니다. 즐거운 명절을 공동체와 함께 보냅시다.
 - ☞ 이날 미사는, 홀리트리니티 본당에 파견 나오신 안 에드워드 신부님과 공동주례합니다.

- 기타
- 오늘 미사 후, 회관에서 청년모임(Unitas)이 있습니다.
 - 신심서적 '차쿠의 아침' 접수 받습니다. 접수비는 5불입니다. 2/15일까지.
 - 2014년 헌금과 교무금, 도네이션에 대한 연말정산을 나누어 드립니다.
 - 사순시기를 맞아, 캔사스대교구에서 Rice Bowl을 나누어 드립니다. 사순시기 동안 회생과 절제를 정성껏 봉헌합니다.
 - 돌아오는 2/18(수)은 '재의 수요일'입니다. 재의 예식에 사용할 성지가지를 회수합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들	성 체	마 침
26	211	167/498	48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정병훈 보니파시오	차민서 임마누엘
	고평원 프란치스코	차서은 세라피나
차주	정수한 베드로	정예찬 미카엘
	문석찬 요셉	문예나 요안나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주연 세실리아	차호섭 요셉 최선윤 마리아
차주	박혜정 카타리나	홍순익 마르티노 최은미 아네스

■ 애찬 봉사자

금주	박혜정, 정연숙, 장남순
차주	다함께(설 명절)

■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 예레미아, 문석찬 요셉
차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요한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2/1	75명	260불	1800불
고영방, 김정원, 안병환, 김화년(총 4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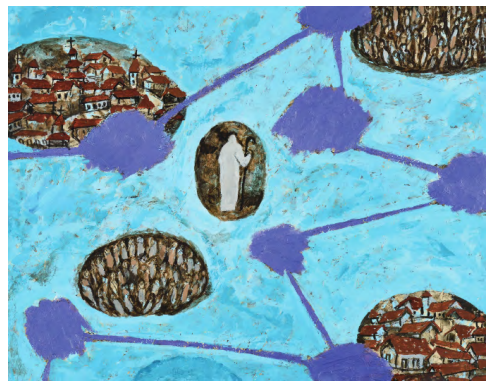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찬미 예수님! 주님께서는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찾아가시어 치유를 베푸시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가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우리 주변의 믿지 않는 이웃과 친구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전교할 것을 마음에 두고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우리 신앙 공동체로 인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림 묵상

온 갈릴래아에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신 예수님은 온 고을에서 사람들이 데려온 많은 병자들에게도 치유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일치하는 가운데 온 갈릴래아를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이의 구원자이십니다.

정미연 소화데레사

제 1 독서 : 욥기 7,1-4.6-7 < 나는 고통스러워 새벽까지 뒤척거리기만 한다네. >

화 답 송 :

주님을 찬양하여라 부서진 마음들을 낫게 하시도다.

- 주님을 찬양하여라. 노래도 줄을 씨고 하느님 노래하여라 찬미도 고을씨고 주님께서 예루살렘 이룩하시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모아 주시다. ◎
- 부서진 마음들을 낫게 하시고 그 상처 동여서 매어주시다. 별들의 수호를 세어두시고 저마다의 이름을 부르시도다. ◎
- 크오셔라 우리 주님 그 힘은 능하시고 그 지혜로우심은 헤아릴 길 없어라. 주님께서는 낮은 자를 들어올려 주시고 악한 자는 땅에까지 낮추시도다.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9,16-19.22-23
<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병고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 짊어지셨네. ◎

복 음 : 마르코 1,29-39 <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셨다. >

세 마

“복음선포”



옴기의 시작에서 옴은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 사람은 흠 없고 올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이였다”(옴 1,1). 이런 옴에게 지속적으로 시련이 닥칩니다. 그리고 옴기는 이것이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알려줍니다. 옴기는 의로운 옴이 온갖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법을 따르고 정의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닥쳐오지만 옴은 하느님을 저버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굳건히 걷습니다. 그 안에서 옴기는 세상사의 덧없음과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그 내용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1독서에서 한 부분을 듣습니다.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요, 그 나날은 날풀이의 나날과 같지 않은가?” 이 모든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느님은 전능하시다는 것과 오로지 그분께만 희망을 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소개되고 체험된 하느님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납니다. 마르코 복음에서 지속되는 예수님의 행적은 이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 병든 이들과 마귀들린 이들을 데려오고 고쳐주기를 청합니다. 카파르나움에서 벌어진 이 일들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하느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행적은 결국 하느님의 구원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소식은 카파르나움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선 제자들은 예수님께 마을로 돌아가기를 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한 곳에서 사람들의 시중을 받으며 머물러 있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더 적절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사명을 위해 길을 떠납니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난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복음 선포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의 가장 큰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의 가장 모범적인 예를 바오로 사도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2독서는 마치 바오로 사도의 독백처럼 들립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복음 선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선교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스스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종을 자처하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일을 하며 선교 여행을 하던 바오로 사도에게 복음은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희망은 복음에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합니다. 나도 복음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합니다. 신앙인은 하느님을 믿는 이들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을 선포하는 이들입니다. 물론 복음 선포가 어떤 행동이나 말로써 신앙을 증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복음 선포는 넓은 의미에서 하느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구원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 있는 선교는 삶을 통해 드러나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실천될 때,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가장 잘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실천하는 것, 구원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 선포의 첫걸음입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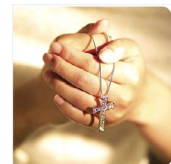
- 가톨릭대학 허규 신부 -



주춧돌

제 2 편 은총의 샘인 성사와 기도

제9-1 장 감옥 문이 열린다



자정 무렵에 바오로와 실라스는 하느님께 찬미가를 부르며 기도하고, 다른 수인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뒤흔들렸다. 그리고 즉시 문들이 모두 열리고 사슬이 다 풀렸다(사도 16,25-26).

【주석】

자정 무렵 : ‘자정’은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때이다.

찬미가를 부르며 : 바오로와 실라스는 감옥에 갇힌 시련 속에서도 원망이 아니라, 하느님께 찬미를 드린다. 에페 5,19에서 바오로 사도는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십시오.”라고 권고한다.

기초가 뒤흔들렸다 : 그 지방에 드물지 않게 지진이 일어나지만, 저자의 눈에는 그것이 명백한 기적이었다(주석 성경, 신약, 507).

【설명】

▶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을 신뢰함을 의미한다. 이 신뢰는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극진히 돌보시고 계시다는 믿음에 바탕한다. 바오로와 실라스는 부당하게 공격을 당하고, 매질을 많이 당하고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신뢰하며 하느님께 찬미가를 부른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감옥 문들이 열리고 사슬이 풀린 것이다.

▶ 언제나 주 너의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그리고 너의 길을 올바르게 해 주십시오, 너의 길과 뜻이 성공을 거두게 해 주십시오 그분께 간청하여라. 어떠한 민족도 스스로 제 뜻을 이루지는 못한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또한 달리 원하시면 저승 밑바닥으로 내던지기도 하신다. 그러니 이제 애야, 이분부를 늘 기억하고 네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라(토빗 4,19).

【교회의 가르침】

▶ 찬미는 그리스도인 기도의 기본 움직임을 드러낸다. 찬미는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이다. 찬미 안에서 선물을 주시는 하느님과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인간이 서로 대화하며 결합한다. 찬미 기도는 하느님 선물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곧, 하느님께서 강복해 주시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2626항).

▶ 만일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고 참을성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하느님을 발견할 것입니다(피에트랄치나의 성 비오 사제).

▶ 하느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무능함을 기도와 사랑으로 하느님의 전부와 연결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성녀 마더 데레사).